

한국 농촌가족의 부부관계에 대한 가족발달적 접근

박 혜 인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he Marital Relationships of Korean Rural Family

Park, Hye In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ersity

1. 머리말

대외종속적 경제발전이 우리나라 농촌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오늘날 도·농간의 소득 격차 심화와 빈농화경향, 그리고 노동력의 부족 현상등은 농촌여성과 노인들의 생산노동 참여를 더욱 증가시켰다(박진도, 1984 : 20). 따라서 농촌가족은 도시가족과 매우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촌가족의 특성은 바로 도시가족과 맞물려 있는 까닭에 농촌가족에 대한 이해없이 한국사회, 한국가족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이해의 타당성이 거부되고 있는 오늘날 농촌가족의 변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국사회, 한국가족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가족학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소외된 농촌사회의 변화하는 가족생활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필자의 일련의 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변화하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가족 발달적 접근을 시도한 가족생활 사례분석 연구(박혜인, 1990)에 이어지는 후속작업이다. 양적인 현지 조사와 질적인 사례분석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농촌가족의 부부관계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부자관계를 중시하던 전통가족의 특징은 이혼과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부부관계의 성격도 변모를 겪게 되었다. 먼저 세대간의 결혼과정의 차이를 밝히고

가족역할, 가족내 의사결정, 그리고 가족가치관의 분석을 통하여 가족주기별 부부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농촌가족에 대한 연구는 그 급격한 변화과정을 밝히는 실태조사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므로 최재석(1988)의 연구와 같이 각 농촌마다 서로 다른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질적분석이 보다 유용하다고 본다. 기존의 근대화 이론 또 발전론적 관점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농촌가족이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를 밝히는 데 미흡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1980년대에 들어와 농촌사회에 대한 정치학적, 사회학적 접근이 진전되고 있고(김주숙, 1990) 또한 여성학적 시각과 계급적 시각에서 농촌가족을 조명하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조옥라, 1990). 이들 연구 결과는 농촌사회 구조를 밝히고 농촌여성의 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연구가 구체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는 소홀한 까닭에 이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기도 하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1) 가족발달적 관점

미국에서 Hill과 그의 동료들(1957 : 90) 그리고 Berardo(1966)가 발달적 접근을 가족연구의 주된 관점으로 부상시켰으나 1970년대에 Holamn과 Burr

* 이 논문은 1988년도 계명대학교 비사 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1980 : 9)는 발달적 접근을 주된 이론에서 제외시켰으며 그 이후 발달적 관점은 소강상태에 머물렀다(Thomas, D. L. & Wilcox, J. E., 1987 : 87). 일본에서 가족발달적 접근이 시간차원에 따라 가족의 변화양상을 포착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주는 유효한 접근법으로 인정되어(森岡清美, 1983) 이 관점은 개인 생애의 역사, 사회맥락적 경험을 포함시킨 life course의 개념으로 변화발전시켜 지속적인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森岡清美, 1986).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발달적 관점을 가정학의 유용한 틀로 받아들여 이 이론을 한국사회에 적용시키는데에 우선 필요한 문화적인 여과장치, 즉 한국가족의 주기 자체를 고찰하여 연구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과(옥선화 : 1980, 유영주 : 1984, 박혜인 : 1986) 실제로 이 틀을 적용하여 가족생활주기를 미시적인 가족 고찰의 변수로 삼아 가족을 횡단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병행하여 연구되었다. 전자에 속하는 농촌가족주기 연구에서는 도시가족에 유용하지 못했던 진수기 가족이(유영주, 1984) 중요한 단계로 설정되었다(박혜인, 1986). 학업, 취업, 혼인 등의 이유로 자녀가 부모를 떠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오늘날 한국 농촌가족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자에 속하는 즉 가족 주기에 따른 미시적 분석의 예는 부부역할, 의사결정, 부부커뮤니케이션, 부부적응, 사회관계망 연구등으로서 이를 통해 가족생활주기가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으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었고 농촌가족에 대하여는 최근에 이루어진 가족갈등 연구가 한편(김양희, 1990) 있을 뿐이다.

(2) 결혼과정

농촌가족의 혼인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례 연구(이성해, 1978)나 지역연구의 일부(최재율, 1975)로 고찰되어졌다. 산업화에 의한 농촌 통혼권의 확대는 1970년대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여 군내 다른면과 혼인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지역적 통혼권은 시장권의 범위와 거의 일치하거나 시장권보다 약간 넓은 정도였으나(여중철, 1978),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통혼권 역시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이성해(1978)의 연구와 최흥기(1979)의 농촌가족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배우자의 선정절차는 가족의 의사보다 당사자의 의사가 더욱 존중

되어 가는 추세임을 밝혔다.

(3) 가족의 역할분담과 의사결정

최재석(1975)은 일찌기 농촌가족의 역할구조 분석을 위해서 도시중심 문항인 Herbst(1952), Blood & Wolfe(1960)와는 구별되는 Johannis, (1965)의 기준에 따라 가사, 육아, 경제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농촌가족의 역할수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내외역할구분의 전통적 가족규범이 집안일에서 강하다고 밝혔으나 경제활동에서는 남편과 처의 협력영역 이외에는 주로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사에서 딸의 참여가 높았고 경제활동은 미약하나마 아들참여가 높다고 했다. 박부진(1975 : 35)의 연구에서도 남자의 업무는 소유권을 수반하는 대외적인 것이며 여자의 업무는 대내적인 가정 중심적 업무로 구별하였다.

그런데 산업화의 변화를 겪은 1985년 조사에서는 자녀의 개별 이혼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조 역할이 아닌 남편과 다름없는 적극적인 참여형태로 변화했음을 밝혔다(최재석, 1986 : 115). 그러나 가사활동은 여전히 여자만의 책임영역으로 남아 있는 까닭에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야 하는 여자로서는 과중한 부담이며 그런 까닭에 가사활동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을 밝혔다. 김주숙의 연구(1990 : 272)에서도 농가 부인은 벼농사의 이앙과 수확, 비닐하우스 농업, 과수, 축산에 공동참여하였다. 다만 농산물 구입과 판매에만 여성참여가 낮았다. 그리고 가사역할은 밥짓기, 설거지, 빨래, 청소 등 부인이 주로 한다가 모두 93% 이상이었다. 이러한 역할수행구조는 Pleck(1979)에 따르면 이른바 feminism에서 표현하는 착취적 관점(Exploitation Perspective)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은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반해 남성은 경제활동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도시가족의 역할연구 결과(신혜섭, 1985 : 49) 부부의 역할 공유가 증가하는 것은 남편의 가족역할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인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Wheeler와 Arvey(1981)는 가족발달 이론을 통한 종단적 연구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남편의 연령은 여성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는 부적의 관계에

있고, 부인의 연령과 일의 책임감과 상관이 없으며 결혼지속년수가 증가하면 남편은 자신 과업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Schafer와 Keith(1981)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점차 부부역할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일상 가족생활에서 생기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권력구조의 일부로 포함되어 연구되었다. 최재석(1975: 120)은 농촌가족에서 결정권은 뚜렷하나 서로 상의하는 일이 적은 자율형의 성격을 띠어 '자율적 남편우위형'이라고 하였다. 직계가족에서는 윗세대 중심이고 특히 결정권은 이양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Blook & Wolfe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연구가 진전 되었으나 의사결정 영역의 문항 선정에서 대표성을 갖는 문제, 실제와 응답간의 차이 문제, 문화적 환경과 생활양식의 상이함으로 인한 비교 곤란의 문제 등 이미 지적된 문제들의 극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본고에서는 양적 분석에 대한 비중을 적게 두었다. 오히려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문화적 맥락'을 포함시킨 Rodam의 규범적 자원이론(Normative Resource Theory)이 한국 농촌 가족에서 재검토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과도기에 있는 사회로서 규범상의 혼란이 있으므로 Rodam의 규범유형을 적용했을 때 일치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한다.

(4) 가족가치관

역할분만 아니라 의사결정에도 규범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한국가족에서 가치관, 특히 그중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치관은 가의식, 가족의식, 가족관계 가치관 등의 용어로 표현되어 왔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가족주의가치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박혜인, 1990)를 보면 가치관 연구는 가족관계, 친척관계, 개인에 대한 집의 우위성, 여성의 지위, 부권제, 부계제, 부거제, 직계제, 여성의 결혼윤리, 효 등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분석에 사용한 변인은 性, 지역(성장지, 거주지), 가족형태, 남편의 출생순위, 자녀수, 자녀 성별구성, 계층(직업, 수입, 학력), 종교, 연령 등이다. 이들 연구 역시 대도시에 편중되었고 대부분의 연구가 전반적인 가족가치관의 서구화, 근대화를 밝히고 있으나 전통성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치관 영역과 보다 빠르게 근대화되어 가는 영역이 혼재하는 까닭에 한국가족의 가치관은 전통성과 근대성의 이중구조가 공존하는 혼돈상태라고 요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간에 상이한 점이 있으며 性, 연령, 계층, 학력, 도시경험정도, 종교에 따라 근대화의 가치지향의 분석에도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연구결과(주정숙, 1984)를 볼때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개인은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농촌가족의 가족가치관은 기혼자녀에 대한 농촌 여성의 가치관(박혜인, 1987)과 가족주의가치분석(박혜인, 1988) 그리고 도시, 농촌간의 비교(박혜인: 1989, 옥선화: 1990)가 있다.

(5) 연구문제

이제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농촌가족의 결혼과정은 세대간에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1〉 농촌가족의 부부관계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2-1. 역할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2.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3. 가족가치관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경북 성주군 벽진면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농촌가족의 생활실태와 그 변화상을 조사하기에 적합한 곳을 모색하여 1988년 3월 경북 일대 몇몇 지역을 예비조사한 후 양적인 조

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곳을 선정하였다. 벽진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보면 마을 앞으로 伊川이 흐르고 北西로는 延鳳山이 있으며, 중앙에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주위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 벽진면은 성주읍으로부터 12~15km 북동쪽에 있으며, 버스로 읍소재지에서 벽진까지는 15~20분 거리에 있으나 내왕하는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없는 데다가 1988년 1차 조사 시에는 비포장이었다. 가까운 거리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도시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집중적인 면접을 실시한 1989년 12월~1990년 1월까지도 포장이 끝나지 않았다가 그 이후 완성되었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수박, 참외 등의 특수작물을 재배해 온 상업농인 까닭에 벼농사 위주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보다는 소득이 높은 편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의 가구가 참외와 수박을 비닐하우스에 재배하여 주소득원을 삼고, 과일출하가 끝난 다음에야 논농사를 짓는다. 특작에 전념하는 가정은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파조차 구입해서 먹을 만큼 농사가 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곳의 농사철은 11월말 경부터 시작하여 12월 하순까지 하우스를 짓고 1월초에 파종하여 2월중순까지 접을 부쳐서 옮겨 심는다. 3월중순부터 순치기를 계속해야 하며 7월 하순 출하가 끝날때까지 계속 손이 많이 가는 노동집약적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조사절차 및 방법

1차조사에 해당하는 양적인 조사는 벽진면 소재지와 그 일대 半徑 1.5km 이내에 있는 해평 1, 2, 3, 4동과 외기 1, 2동 그리고 매수 1동 등의 자연부락내 295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조사인 설문지 조사는 1988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지역에 머물며 실시하였다. 설문지 자료수집은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4학년과 대학원 학생들의 질문지를 통한 주부와와의 직접 면담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 자료는 가족생활 변화상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려는 양적인 조사에 편중된 까닭에 가족생활의 심층적인 부분은 미흡하였다. 그리하여 세대간의 경험 차이를 밝히고 그것이 오늘날의 가

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별도의 질적인 사례조사를 2차년도인 1989년 10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개인발달의 이행과 세대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life course개념(森岡清美, 1986)을 도입하여 개인생애를 면접하면서 그들의 역사적, 사회적 경험이 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유념하면서 자료수집을 하였다. 그리고 미흡한 것은 1989년 12월과 1990년 1~2월의 조사 그리고 그 이후 1991년 2월까지의 간헐적인 추후조사로 보완하였다. 이중 특히 농촌가족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혈연인식의 잔재는 1989년 10월까지의 조사를 근거로 하여 혼, 상, 제례의 변화 관행을 통해 별도로 분석, 발표한 바 있다(박혜인, 1989-b: 103).

1차년도인 1988년의 양적조사 결과를 통계분석 처리하면서 그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질적 접근을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고 이 보고는 주로 양적자료의 분석에 치중하였다. 양적인 조사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결혼과정과 가족가치관의 항목에 대하여는 표집 대상 전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였으나 부부간의 역할과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남편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대답을 기피한 사례를 제외시킨 236명만을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3) 본 연구의 제한점

첫째, 가족유형별 분석을 제외시켜 자녀 시부모 등의 기타 가족원의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가족유형이 유의미한 변수가 못되었다는 점에서 가족유형별 분석을 제외시켰으나 실제로 부부간의 역할이나 권력은 부부 이외의 다른 가족원의 유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종단적인 가족유형의 변화를 포착하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가 가족발달에 따른 가족변화의 통합적 고찰의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다. 이것은 서로 세대간의 경험이 이질적인 가족을 단기횡단적 분석에 그쳤기 때문이며 또한 질적인 자료를 양적인 분석과 연결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4. 조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가족의 일반적인 성격에서<표1> 주부의 연령분포는 20대가 가장 적고(11.9%) 40대가 18.3%, 50대가 20.0%인데 60대 이상이 25.4%로 고령층의 비율

이 역시 가장 높지만 특수작물 재배로 인하여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1989년 3월의 성주 초전면 조사자료(조희금, 1989: 152)에서 39세 이하가 36%로 나타난 것과 거의 일치하는데 같은 시기의 전통농 지역인 영천군 화산면(39세 이하는 7%)과 비교해 보면 생업이 마을의 인구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295*)		
변	인	N(%)	변	인	N(%)
현재연령	20대	35(11.9)	부인성장지	농 촌	249(84.4)
	30	72(24.4)		도 시	44(14.9)
	40	54(18.3)	주 관 적 생 활 수 준	上	83(28.1)
	50	59(20.0)		中	127(43.1)
	60세이상	72(25.4)		下	62(21.0)
학 력	무 학	89(30.2)	배우자직업	관리·전문직	1(0.3)
	국 졸	99(33.6)		사 무 직	11(3.7)
	중 졸	62(21.0)		상 업	19(6.4)
	고 졸	30(10.2)		농 업	182(61.7)
	대 졸	1(0.3)		단순노동	1(0.3)
	불 교	149(50.7)		기 타	18(6.1)
기 독 교	13(4.4)	무 직		63(21.4)	
종 교	천 주 교	19(6.5)	가 족 유 형	1인가족	10(3.5)
	기 타	1(0.3)		남편·부인	46(15.9)
	없 음	95(32.3)		부부와 미혼자녀	126(43.6)
	배우자유무	有 236(80.0) 無 48(16.3)		부부와 기혼자녀	12(4.2)
결혼형태	연 애	38(12.9)		부부·기혼자녀·미혼손자녀	95(32.9)
	절 충	11(3.7)		유아기가족	45(15.5)
	중 매	245(83.1)		학동기가족	36(12.4)
	가 족 주 기		청년기가족	43(14.3)	
			진수기가족	76(26.2)	
			중년기가족	12(4.1)	
			노년기가족	78(26.9)	

* 무응답 사례로 인하여 합계는 변인별로 일치하지 않음.

가를 알 수 있다. 주부의 학력은 국졸 이하가 63.8%이고 그중 무학도 30.2%를 차지한다. 남편이 없는 경우가 16.3%인 것은 주로 노령층의 비율이 높는데 기인하며 주관적 생활수준인지는 상이 28.1%, 중이 43.1%, 하는 21.0%에 이르며, 성장지는 농촌이 대부분이지만(84.4%) 도시에서 성장하여 농촌에 들어온 경우도 14.9%에 이른다.

(2) 가족형태와 가족주기

가족유형은 1인가구를 포함하여 핵가족이 63.0%,

확대가족이 37.1%를 차지한다. 1인가구가 3.4%, 부인과 남편으로 이루어진 2인가구가 15.9%로서 1세대가구가 19.4%이다. 그리고 미혼자녀와 부모가 구성하는 2세대가구가 43.6%이다. 확대가족에서도 부부와 기혼자녀로 구성되는 2세대가구가 4.2%이고 부부와 기혼자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3세대가구는 32.9%이다. 이러한 분포는 같은 시기에 조사된 성주군 초전면(조희금, 1989)의 구성비율과 비슷하다. 그러나 쌀농사 위주의 영천군 화산면과는 현저히 다르다. 3세대가구의 비율은 벽진면이 화산면의

3배를 상회하는 정도이고, 1인가구의 비율은 화산면(12.0%)에 비하여 벽진면(3.5%)은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의 1987년 자료(김주숙, 1990)보다는 벽진면의 3세대가구의 비율이 약간 적은 수치인데 이러한 구성비율의 차이는 해당 농촌지역의 경제적 안정성과 함께 그 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주기 분포는 역시 노년기 가족이 26.9%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진수기가족으로서 26.2%를 차지하는데 학업과 취업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진수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자녀양육기가 15.5%, 학동기 가족이 12.4%, 청년기 가족이 14.8%이다. 중년기 가족도 4.1%를 차지한다. 결국 한국 농촌 가족에도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60세 이전에 자녀가 전부 집을 떠난 단계 즉 “빈둥우리가족(empty nest)”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그 비율이 적다.

조사대상자의 초혼연령은 21.08세, 초산연령이 21.52세, 자녀수는 3.06이고 단산연령은 32.19로 산출되었다. 이것을 선행연구와 비교하면(박혜인, 1986: 98) 자녀수는 3.9명에서 3.1로 감소하였고 초혼연령이 적은 수치이긴 하나 21.3에서 21.1로 빨라졌고, 단산연령도 32.9에서 32.2로 단축되었다. 단산연령이 빨라진 것은 자녀수 감소에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이나 초혼연령, 초산연령이 빨라진 것은 도시의 일반적인 만혼경향이나 미혼여성의不在로 인한 농촌 총각의 만혼 현상과도 달라서 좀더 깊은 고찰이 요망된다. 필자의 사례연구에서도 나타났지만 최근의 근교농촌 혼인연구(윤형숙, 1990)에서도 사실혼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농촌혼인의 관행은 혼례식의 여부에 상관 없고 혼인신고와도 무관한 사실혼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가 본 조사에서도 영향을 미친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가족 연구에서도 핵가족, 직계가족의 가족유형 분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농촌가족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현재 농촌가족이 핵가족형태라고 하여도 그것은 도시에 일부 이촌해 나가있는 조부모 손자녀와 합하여 실제로는 하나의 직계가족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이유이다. 이때 두 가구는 별개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태적인 가족유형 분류에 따른 가족주기 설정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각 가족내 연장자 주부와 첫자녀를 중심으로 가족주기를 설정했음을 밝힌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계가족의 주기 고찰은 보고의 한계점으로서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3) 결혼과정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90.5%가 19세 이전에 결혼한 반면 50대부터는 20세 넘어 결혼한 비율이 높다(52.5%). 30대의 2.82%, 40대의 14.8%가 19세 이전에 결혼했으며 20대 연령층은 전부 20세 넘어 결혼했다. 이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1.1세이다.

배우자 선택방법을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가족주기($p=.000$), 연령($p=.000$), 결혼형태($p=.000$), 성장지별($p=.000$)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2). 유아기가족 주부의 11.4%가 배우자를 자기 스스로 선택했고 45.5%가 본인이 선택한 후 부모승락을 얻었으니 56.9%가 본인 위주의 배우자 선택인 셈이다. 그러나 학동기가족의 경우에는 80.6%가 부모가 선택하거나(30.6%) 부모가 선택한 후 본인의 의견을 반영(50.0%)하였다.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이 청년기 가족의 경우 21.0%, 진수기가족은 14.4%이다. 중·노년기가족은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부 부모의견에 따르거나 아예 부모가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노년기가족은 부모 단독선택이 89.7%, 부모선택 후 본인수락의 경우가 9%에 불과했다.

이어서 여성들의 통혼권 분포를 보면 같은 군내에서 시집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같은 군내 결혼 비율은 세대가 젊어지는 경우 감소하는 경향이고 같은 도, 다른도로 확산되어 간다. 그렇지만 같은 면, 같은 마을 안에서의 혼인도 별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 유아기가족의 경우 같은 군 다음으로 다른 도인데 반해 학동기주기 이후는 같은 군 다음으로 같은 면 내에서 통혼하였다. 20대는 다른 도로 통혼권을 확대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학력별로 분석해 본 결과 고학력일 경우 통혼권이 넓었고 상대적으로 저학력의 경우는 같은 군 같은

표2. 변인별 배우자 선택방법

변인	항목	부모선택		본인선택		합 계	χ^2 값
		부모선택	부모승락	본인선택	부모승락		
가 족 주 기	유아기	3(6.8)	16(36.4)	20(45.5)	5(11.4)	44(100.0)	$\chi^2=116.545^{***}$ df=15 p=.000
	학동기	11(30.6)	18(50.0)	6(16.7)	1(2.8)	36(100.0)	
	청년기	21(48.8)	13(30.2)	6(14.7)	3(7.8)	43(100.0)	
	진수기	53(69.7)	12(15.8)	9(11.8)	2(2.6)	76(100.0)	
	중년기	8(66.7)	4(33.3)	0(0.0)	0(0.0)	12(100.0)	
	노년기	70(89.7)	7(9.0)	1(1.3)	0(0.0)	78(100.0)	
연 령	20대	2(5.9)	9(26.5)	18(52.9)	5(14.7)	34(100.0)	$\chi^2=137.24^{***}$ df=12 p=.000
	30대	22(30.6)	34(47.2)	13(18.1)	3(4.2)	72(100.0)	
	40대	29(53.7)	14(25.9)	8(14.8)	3(5.6)	54(100.0)	
	50대	47(79.7)	8(13.6)	4(6.8)	0(0.0)	59(100.0)	
	60세이상	69(92.0)	6(3.6)	0(0.0)	0(0.0)	75(100.0)	
결혼 형태	연 애	0(0.0)	1(2.7)	27(73.0)	9(24.3)	37(100.0)	$\chi^2=199.282^{**}$ df=6 p=.000
	절 충	1(9.1)	6(54.6)	4(36.4)	0(0.0)	11(100.1)	
	중 매	168(68.6)	64(26.1)	11(4.5)	2(0.8)	245(100.0)	
성 장 지	농 촌	157(63.1)	56(22.5)	30(12.1)	6(2.4)	249(100.1)	$\chi^2=279.004^{***}$ df=3 p=.000
	도 시	11(25.6)	14(32.6)	13(30.2)	5(11.6)	43(100.1)	

면에서 혼인이 이루어진 경향이 나타난다($p=0.17$) 결혼형태별로 연애혼의 경우가 중매혼의 경우보다 통혼권이 넓었다($p=.002$). 그리고 10년 이상 도시에서 자란 경우 성장지를 도시로 분류하였을 때 도시에서 성장한 경우의 52.2%가 도 경계를 넘어서 결혼하였으니 이것은 지역간의 이동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당연한 추세라고 하겠다.

(4) 가족역할과 의사결정

12가지의 항목을 가족원간에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가 조사한 결과(표3)과 같다. 부부 역할구조의 대체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간단한 집수리(63.1%)와 공공기관 출입(58.0%)은 남편의 역할 비중이 높고 그밖의 가사노동은 부인의 역할 비중이 단연 높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있지만 학부모회의와 자녀학습지도는 부인몫이 반쯤 되고 자녀등 기타가족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시모의 가족역할은 과거(최재석, 1975)와 다르게 축소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팔자좋은 노인은 일 안하는 노인'이라는 통념을 공유하고 있는 도시노

인에 대한 연구결과(최미경, 1990)와 일치하고 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억척스레 일을 하여 자녀를 키워 온 시어머니가 환갑의 나이에든 계속 혼자 농사를 짓는 사례가 있었는데 도시에서 직장생활 까지 하다가 이곳으로 시집온 그집 며느리는 전혀 농사일을 못한다. 뿐만아니라 본인 스스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 오려면 그건해도 농사일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농사에 대한 비하 때문에 더욱 일을 거들지 않고 있으므로 이집 며느리에 대해 동네 여론은 더욱 따갑다.

역할 항목별로 남편과 기타 가족원에게 가중치를 주어 담당자가 부인이면 1점, 시부모 2점, 자녀 3점, 남편은 4점을 주어 평균값을 구하여 각 변인별로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가족주기($p=.000$), 남편학력($p=.000$), 성장지($p=.000$), 생활수준($p=.01$)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4). 즉 가족주기가 빠른 경우, 학력이 높은 경우, 도시에서 성장한 경우,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에 남편과 기타 가족원의 협력이 높다. 따라서 고학력의 도시경험을 한 유아기 가족의 남편이 가장 부인과 융통성 있는 역할 분

표3. 가사역할 분담상황

가사노동항목	(N=236)				
	부인	남편	자녀	시부모	무응답, 해당안됨
바느질	84.4	9.7	8.8	4.4	1.7
세탁	87.8	0	10.2	1.4	0.7
다림질	83.1	1.7	11.9	0.7	2.7
요리	88.5	0	9.5	0.3	1.7
설거지	87.8	0	9.8	0.3	2.0
장보기	81.0	4.1	9.2	4.1	1.7
청소	81.7	2.0	12.5	1.0	2.7
간단한 집수리	16.6	63.1	13.9	1.4	5.1
연탄갈기	76.9	8.5	9.2	1.0	4.4
공공기관 출입	26.1	58.0	11.2	1.7	3.0
학부모회 참관	54.6	15.9	5.4	0.3	22.0
자녀의 학습지도	46.1	19.3	14.2	1.7	18.7

(단위 : %)

표4. 남편과 가족원의 가사역할 참여에 대한 변량분석

변인	df	SS	MS	F값	P값
가족주기	22	53.120	2.415	8.84	p=.0001
남편학력	22	79.802	3.627	5.27	p=.0001
성장지	22	6.469	0.294	2.91	p=.0001
생활수준	22	20.728	0.942	1.97	p=.0094

담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진수기, 중년기, 노년기 가족의 경우도 부인이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주 왕래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것이 질적인 조사로 확인되었으나 아직은 이러한 사례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념적으로 성별 고정관념이 지속된다해도 실제상황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때 현실에 적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성별 역할의 고정관념이 가장 고수되고 있는 가족은 노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 가족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여성들이 현재 농사보조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농업종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1987년 현재 농촌여성의 노동투하량은 총투하노동의 44.2%로서 1965년의 27.5%보다 크게 증가하였다(농수산부, 『농가경제 조사결과보고』) 이러한 현상은 농가의 상업화에 의한 현금작물의 재배가 늘어난 데 결정적으로 기인하며 본 조사지역이야말로 상업농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상

대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1965년 노동투하량이 72.5%이던 것이 1985년 55.8%로 감소하였다. 여성개발원 조사자료(1987)에 의하면 농번기의 경우 부인의 노동시간은 11시간 28분, 남편은 11시간 54분이다. 특히 조사마을의 경우 비닐하우스 특수작물재배가 주업이므로 파종에서부터 거두기까지 여성의 노동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어서 12가지 항목에 대한 가족원간의 의사결정을 조사분석한 결과(표5)와 같다. 남편우위의 항목은 식성(59.0%), 땅매매(49.8%), 농사(44.1%), 작물종류 선정(38.0%), T.V. 프로그램(35.6%), 관광여행(32.9%)등 6항목이고 부인우위의 항목은 의복구매(75.3%), 방도배지 선정(54.6%), 가구(51.9%), 가전제품(25.8%)의 네 항목이다. 남편, 부인의 공동결정이 가장 높은 항목은 자녀진학(33.2%)과 가족계획(30.5%)이었다. 시부모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며 식성(13.2%), 땅매매, 작물종류, 가족계획에서 7.5%를 나타낸다. 특히 가족계획의 경우 손녀만 둘 있는 도*인 할머니는 한사코 손자를 낳아야 한다고 하고 그 며느리는 남편을 설득하여 단산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집의 경우 남편-시모-부인의 순서로 의사결정 순위가 정해진 듯하다. 그러나 박*정씨 가족의 경우는 동네 비난조차 감수하며 농사일을 안하고 집에 있는 며느리를 볼 때 남편, 부인-시모의 순서로 파악된다.

표5. 부인의 의사결정참여 상황

의사결정	(N=236)					
	남	편	부	인	남편부인공동	시부모 자녀 무응답, 기타
농사분담	44.1	22.4	15.3	6.8	7.5	4.1
땅 매 매	49.8	6.8	21.7	7.5	7.8	6.4
작물종류	38.0	13.2	24.1	7.5	7.8	9.5
가전제품	22.4	25.8	25.4	2.4	20.3	3.7
식 성	59.0	8.1	3.1	13.2	9.8	6.8
가구구입	12.2	51.9	16.6	2.0	12.2	5.1
방도배지	11.5	54.6	16.9	2.4	12.9	1.7
부인의복	8.5	75.3	5.4	1.4	4.7	4.7
자녀진학	24.4	11.9	33.2	1.0	25.8	3.7
가족계획	14.9	23.7	30.5	7.5	2.4	21.0
TV프로그램	35.6	12.9	15.6	2.0	25.8	8.1
관광여행	32.9	15.3	29.2	3.1	6.1	13.6

(단위 : %)

자녀의 의사결정권한은 가전제품 선택에서 20.3%를 나타내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남편 혼자 결정하는 집,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집, 자녀가 결정하는 집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집단결정형이라기보다 단독결정형이라고 한 선행연구와 일맥 상통한다. 그러나 자녀진학문제는 부부공동(33.2%), 자녀(25.8%), 남편(24.4%), 부인(11.9%) 순이었다. 유아기 가족의 경우는 부부가 함께 또는 남편이 주로 결정하고 자녀가 성장한 경우는 자녀 단독으로 결정하는 율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상대적으로 부인결정이 11.9%만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농촌여성은 사회변화에 대한 무지 때문에 특히 도시 교육문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엄마가 무얼 안다고'라고 말하는 자녀들의 발언에 표현되고 있었다. 그런데 1968년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재산 매매에서 남편이 75.5%, 부인이 5%, 부부공동이 12.5%이며 농사분담에서 남편이 67.5%, 부인이 16.5%, 공동결정이 15.0%이다(표6).

20년간의 시대변화에서 남편의 결정권한이 얼마만큼은 부인에게 또는 공동결정으로 이양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이미 서술한 바와같이 그 항목의 공동 결정 이외의 영역에서 남편단독(6항목)과 부인단독(4항목)으로 의사결정 영역이 명백한 것은 성별에 따른 구분관념이 존속되고 있다는

표6. 가족내 의사결정권의 변화

조사 대상	분담내역	1968(최재석)	1988(본조사)
		전국일부(N=200)	경북일부(N=295)
농사분담	남편	67.5	44.1
	부인	16.0	22.4
	공동	15.0	15.3
	기타	1.5	18.4
중요재산매매	남편	75.5	49.8
	부인	5.0	6.8
	공동	12.5	21.7
	기타	7.0	21.7
합계		100.0(%)	100.0(%)

증거이므로 아직은 일치형이 아닌 자율형에 가깝다고 표현하는게 더 합당하다. 또한 주요 재산 매매나 농사와 같이 남편결정이 우세한 것은 전가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할 성격의 항목이다. 뿐만아니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음식장만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부인이 식성은 남편에 따르는 비율이 59.0%라는 데에서 남편권위에 대한 부인들의 존중과 상징적인 함축성을 볼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비해 시부모의 식성은 13%만이 고려한다는 데에서 가족 내 노인에 대한 이 시대의 태도변화를 볼 수 있다. 최재석(1968)에 의하면 媿父는 대표권, 관리권은 물론 결정권에서도

子보다 父가 단연 높아서 농사결정에서 父는 62.8%, 子는 7.2%를 나타냈다. 이와같이 직계가족의 경우 부부간의 성별분업과 媳父를 최고결정자로 하는 세대권리가 강한 것이 특징이어서 이른바 자율적 家長우위형(Autonomie Family-head Dominant Type)이라 불리워졌는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크게 달라진 점은 부모세대의 결정권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20년간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도 증대되긴 하였으나 역할 증가에 비하여 괄목할만한 정도는 결코 아니다.

이어서 부부의 의사결정권을 남편, 부인의 대칭 관계에서 개괄적으로 파악하고자 남편의 권한을 1점, 남편.부인 공동은 3점, 부인은 5점을 부여한 값을 구하여 각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표7) 본인학력이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쳤다(p=0001). 이에 반해 남편의 학력, 종교, 생활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남편의 학력보다 부인의 학력이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 이것은 결국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가 남편 자체보다 부인의 학력 즉 자질과 태도에 달린 것으로 해석되어 앞으로 농촌가족 여성의 부부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남편, 부인의 의사결정권 뿐만 아니라 역할에서도 성별 구분이 극복되어 융통성 있는 역할분담과

표7. 가족내 의사결정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변 인	df	SS	MS	F값	P값
본인학력	36	100.389	2.789	8.02***	0.0001
남편학력	36	39.606	1.100	1.03	0.4339
종 교	36	39.594	1.099	0.50	0.9909
생활수준	36	22.212	0.617	1.24	0.1911

공동의 의사결정의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제까지의 역할분담과 의사결정을 종합해 보면 남편은 역할이 적고 권한이 많으며, 부인은 역할이 많고 권한이 적다. 특히 이러한 불평등은 비닐하우스라는 문명의 발달을 이용하되 농업기계와는 관계없는 상업농 지역에서 농업노동에 남편, 부인이 대등하게 공동참여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 불평등구조는 더욱 심각하다. 이것은 도시가족에서 가사노동의 분담없는 여성취업이 여성의 이중역할을 초래한 것과 같은 양상으로서, 전통사회의 성별 역할분리보다 더욱 여성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

(5) 가족가치관

아들선호, 양자등을 포함한 자녀관, 부인인내, 부부외출 등의 부부관 그리고 제사, 장남동거, 효 등

표8-1. 항목별 가치관의 전통성과 근대성

항 목	N	Mean	SD
제 사	291	1.12	0.45
택 일	292	1.18	0.54
부 모 빚	284	1.15	0.51
아들선호	293	1.34	0.65
부인인내	292	1.45	0.84
부부문제	283	1.50	0.67
딸의 시집살이	281	1.69	0.73
부모·자녀관계	279	1.84	0.70
자녀교육	293	2.27	0.96
며느리의 취업	288	2.31	0.82
며느라와 동기	284	2.38	0.68
부부외출 동반	286	2.56	0.50
양자입양	285	3.32	0.79

표8-2. 가족가치관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변 인	df	SS	MS	F값	P값
가족주기	13	183.584	14.122	11.654***	.0001
학 력	13	72.344	5.565	7.485***	.0001
종 교	13	34.343	2.642	1.429	.1484
결혼형태	13	27.068	2.151	5.058***	.0001
성 장 지	13	5.824	0.448	3.605***	.0001
생활수준	13	11.415	0.878	1.800***	0.0451

전반적인 가족가치에 관한 13가지 문항에 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는(표8-2)와 같다. 가장 전통적인 가치관은 제사(1.12)이고 그 다음이 부모 빚에 대한 자녀의 의무(1.15), 택일(1.18), 아들선호(1.34), 부인인내(1.45)순이었다.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가치 영역은 양자(3.32), 외출시 부부동반(2.56), 장남동거(2.38), 며느리 직장생활(2.31)의 순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들 선호의 관념이 남아 있으면서도 장남동거는 포기하는 경향이 농촌에서도 두드러진다는 점이고 또한 부인의 인내를 당연히 여기면서도 며느리의 직장생활은 허용하고 또한 동등한 부부동반의 외출을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변화의 추세는 불가피하게 수용하면서도 내면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준다고 해석된다. 즉 시대변화에 따라 직장 등의 이유로 장남과의 동거는 불가피하게 어려워졌고 또한 가계계승의 유교적 관념도 약화되어 양자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아들선호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며느리의 직장생활과 부부동반 외출에 개방적이면서도 여전히 여성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본 조사 대상 주부들이 철저히 가부장적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 역시 앞에서 살펴본 여성의 과도한 역할 참여에 비해 의사결정 참여는 부족한 가부장적 특성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부인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아야 한다에 76.6%가 찬성이고 반대가 6.1%, 그 저그렇다가 16.3%이니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이다. 가족주기별(p=.0001), 연령별(p=.001), 결혼형태별(p=.001), 배우자 유무별(p.036)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종교,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빠른 가족주기에서, 연령이 젊은 집단에서, 연애혼의 집단에서,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덜 전통적인 가치를 나타냈다. 아들선호사상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찬성이 75.3%, 반대가 9.5%, 그저그렇다가 14.6%여서 전반적으로 아들선호가 지배적이다. 변인별 분석 결과 가족주기(p=.000)에 따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다(표9). 그리고 연령(p=.000), 학력(p=.000), 배우자유무(p=.014), 결혼형태(p.000), 성장지(p=.

표9. 아들선호의 가치관 분석

변 인	df	χ^2 값	P값
가족주기	10	49.384***	.000
연 령	8	57.043***	.000
학 력	6	37.142***	.000
종 교	4	5.892	.207
배우자유무	2	8.580*	.014
결혼상태	4	34.633***	.000
성 장 지	2	22.252***	.000
생활수준	4	4.991	.288

000)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종교,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75.3%나 되는 절대다수가 아직 남아선호에 보수적이나 가족주기, 학력,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점차 남아선호가치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더욱 이를 가속화하기 위하여는 사회제반 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노후의 거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표10) 늙은 후에야 장남에게 가겠다(33.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부부(26.4%), 장남(21.4%), 형편에 따라(8.8%), 혼자(4.7%)의 순이다. 그리하여 처음부터이건, 늙은 후에건간에 장남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가 55.0%로서 과반수가 넘는

표10. 노후거처에 대한 가치관 분석

항 목	N(%)
혼자살겠다	14(4.7)
부 부 함 께	78(26.4)
늙은후 장남집에	99(33.6)
형 태 따 라	26(8.8)
장남과 함께	63(21.4)
무 응 답	15(5.0)

변 인	df	χ^2 값	P값
가족주기	30	65.108***	.000
연 령	20	55.035***	.000
학 력	15	48.641***	.000
종 교	10	19.595*	.033
배우자유무	5	35.594***	.000
결혼상태	10	30.834***	.001
생활수준	10	12.311	.265

다. 부부이거나 혼자독립하고자 하는 비율은 31.1%이다. 형편 따라 딸, 아들 구별하지 않고 자녀에 의존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하다. 이것 역시 가족주기(p=.000)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났고 연령(p=.000), 학력(p=.000), 종교(p.033), 배우자 유무(p=.000), 결혼형태(p=.001)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265). 노후 거처에 대한 태도는 생활수준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변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농촌가족의 가치관은 아직은 계층문화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장남과의 동거를 원하는 21%를 제외한 대상에게 따로 살고자 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표11) 자유롭게 독립하고자 하는 비율이 40.0%이고 시대

표11.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 분석

항 목	N(%)		
자녀의 직업때문에	56(19.0)		
시대변화추세니까	59(20.0)		
자유·독립이 좋아서	118(40.0)		
무 응 답	62(21.0)		
변 인	df	χ^2 값	P값
가족주기	10	29.075***	.001
연 령	8	37.967***	.000
학 력	6	30.626***	.000
종 교	4	4.940	.293
배우자유무	2	5.666	.059
결혼상태	4	13.040	.011
성 장 지	2	3.040	0.219
생활수준	4	5.379	.251

추세에 따라서가 20.0%, 직업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19.0%이다. 여기서는 외면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태도보다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인 것처럼 나타난다. 장남동거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내면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났다. 즉 외부적인 변화에서 연유한다기보다는 본인들 스스로가 선택한 태도로서 표현된 까닭에 합리적이고 진보적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 농촌 가족 변화의 획기적인 측면의 하나라고 보겠다. 특

히 이러한 태도는 가족생활주기(p=.001), 연령(p=.000), 학력(p=.000), 결혼형태(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종교, 배우자 유무,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상속을 조사분석한 결과(표12) 자녀균분이 18.6%, 아들균분이 14.6%, 장남우선 아들상속이 30.5%, 장남단독 상속이 22.0% 그리고 공부만 시켜 주겠다가 9.8%이다. 이를 통해 볼때 농촌여성의 태도는 아직 장남 우선, 아들 우선이 완전하여 개정된 가족법과 편차가 크다. 그러나 이 문항 역시 가족생활주기(p=.000), 연령(p=.000), 학력(p.000), 배우자 유무(p=.009), 결혼형태(p=.000), 성장지(p=.000)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종교나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학업이나 도시 경험 등을 통한 사회변화의 접촉이 이들의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2. 재산상속에 대한 가치관 분석

항 목	N(%)		
자녀균분	55(18.6)		
아들균분	43(14.6)		
장남우대	90(30.5)		
장남단독	65(22.0)		
공부만 시킴	29(9.8)		
무 등 답	13(4.4)		
변 인	df	χ^2 값	P값
가족주기	25	61.514***	.000
연 령	20	55.655***	.000
학 력	15	46.820***	.000
종 교	10	8.739	.557
배우자유무	5	15.249**	.009
결혼형태	10	39.557***	.000
성 장 지	5	27.582***	0.000
생활수준	10	13.813	.182

노후 살림권 이양에 대한 태도는 며느리가 살림 능력이 생긴 후가 4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본인 건강이 나빠졌을 때가 24.1%이며 며느리를 맞이한 즉시가 19.3%, 죽을때까지 물려주지 않겠다도 9.5%에 이른다(표13). 일본의 은거문화와 달리 우리

표 13. 살림권 이양에 대한 가치관 분석

항 목	N(%)		
말머느리 맞이한때	57(19.3)		
머느리의 살림능력이 생길때	120(40.7)		
건강이 나빠진 때	71(24.1)		
죽은 이후	28(9.5)		
무 등 답	19(6.4)		
변 인	df	χ^2	P값
가족주기	20	40.987**	.004
연 령	12	33.150***	.001
학 력	9	14.443	.107
종 교	6	21.266**	.002
배우자유무	3	8.408*	.038
결혼형태	6	19.138**	.004
성 장 지	3	0.770	0.857
생활수준	6	9.747	.136

나라 여성들은 머느리에게 살림권을 이양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머느리를 맞이한 즉시(19.3%)에 비해 머느리가 살림을 맡을 능력이 생길때까지(40.7%)가 훨씬 높은 비율인데 과연 어느 시기가 시어머니 눈에 머느리가 미더워 보일런지 미지수이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24.1%)라고 하나 살림권이 역할이기 보다는 권한이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니 놓기 싫은 심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죽을 때까지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시어머니가 솔직한 것인 지도 모른다. 이것은 가족생활주기($p=.004$), 연령($p.001$), 종교($p=.002$), 결혼형태($p.004$), 배우자유무($p=.03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 학력, 성장지,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맺음말

자본주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수십년간 소외되고 있는 농촌가족에 대하여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경북 벽진의 조사 마을 역시 이미 노년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학동기가족의 비율이 낮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가족에서도 현대사회의 가족주기의 특징인 중년기 가족이 출

현하기 시작하였다. 유아기 가족의 부부는 만혼의 경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늦게 결혼하였으며 또한 연애혼의 비율이 높고 통혼권도 넓어졌다. 그러나 결혼적령기의 농촌 젊은이의 부재와 사실혼의 증가로 인하여 도시의 만혼 경향과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부부간의 역할분담은 상호간의 역할용통성이 증가하지 않은 채 즉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증가하지 않은 채 부인의 농업노동 역할만이 현저히 증가되어 부인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이른바 착취적 관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력이 높고 도시경험을 한 유아기가족의 남편일 경우에 역할분담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앞으로 서서히 역할구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있는 정도이다.

한편 부인의 의사결정 권한은 아직 성별 영역구분 고정관념이 확연하여 부부일치형이 아닌 성별 자율형에 가깝다. 즉 부인의 역할 증대에 상응할 만한 정도의 의사결정권은 증가되지 않았다. 다만 부인의 학력이 의사결정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져 농촌여성의 고학력화는 평등한 부부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부인의 이중역할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여전히 가족가치관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지속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들을 선호하고 부인의 인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시에 장남동거와 머느리의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가치지향을 보이므로 이것은 결코 민주적인 부부관계로 보기 어렵다. 다만 유아기 가족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가장 진보적인 가치지향을 나타내는 바 앞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실천행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는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권위주의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민주화가 사회의 민주화를 가져온다는 통념과 달리 가족은 사회의 민주화를 통해서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농촌의 황폐화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발전의 미명 아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농촌에서 여성들이야말로 역할에 상응하는 권한도 갖지 못하는 가부장제의 새로운

왜곡 형태 속에서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볼때 이러한 작업은 남녀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 차원의 실천이 밀받침되어야 변화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권영자. 1987.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17.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란. 1989. “한국 농촌여성 연구를 위한 일고찰”. 여성연구 23. 한국여성개발원.
- 김주숙. 1985. “농촌 여성과 일” 이대 한국여성연구소 편『한국 여성과 일』. 이대출판부.
- 김주숙. 1988. “여성 농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편, 『한국농업, 농민문제 연구1』. 연구사.
- 김주숙. 1990.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와 가족 : 1976~87”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까지.
- 김혜숙. 1982.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제주도 농어촌 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0~3.
- 김홍은. 1986. “부부의 자원과 부부 권력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4.
- 박부진. 1975. “한국 농촌가족의 역할구조”. 인류학논집 1.
- 농촌생활과학회 편집부. 1990. “1945년 이후 농촌생활과학 분야 연구논문목록”. 농촌생활과학1-1.
- 박진도. 1984. “독점 자본주의 하의 농민층분해론의 전개” 역사와 사회2, 한울.
- 박현채. 1988.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와 농업, 농민문제”.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편 『한국 농업 농민문제 연구1』. 연구사
- 박혜인. 1986. “한국 농촌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설정에 대한 연구” 계명대 과학논집 12.
- 박혜인. 1989. “한국여성의 가족주의가치 분석-대구, 경북지역의 도시, 농촌비교-”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 16.
- 박혜인. 1989. “가족관계를 통해 본 한국인의 혈연의식 -경북 벽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 2.
- 박혜인. 1990. “한국 농촌가족에 대한 가족발달적 접근 -가족생활과 여성의 일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연구 18.
- 신혜섭. 1985. “도시가정에서 남편의 가족역할 수행에 관한 실태조사”. 서울대 석사논문.
- 여중철. 1978. “한국 농촌의 지역적 통혼권” 신라가야 문화연구 9. 10집.
- 옥선화. 1990. “한국 도시의 가족생활주기에 관한 고찰” 성심여대 생활과학논집 1-1.
- 옥선화. 1986. 가족주의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3.
- 옥선화. 1990. “현대 한국의 가족주의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1984. “한국 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 유영주. 이정연. 1990. “가족연구의 역사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 윤형숙. 1991. “서울 근교농촌의 경제실태와 혼인”. 이효재 외『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또 하나의 문화.
- 이성해. 1978. “도시근교농촌의 혼인에 관한 사례연구” 영대 사회문화논총 창간호.
- 조옥라. 1990. “도시 빈민가족과 농촌 영세빈농가족의 비교”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까지.
- 조희금. 1989.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2)”.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권 2호.
- 주정숙. 1986. “가족의식의 성차와 세대차에 대한 실태 연구”. 공주사범대 논문집 24.
- 최미경. 1990.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 최재석. 1975. 『한국 농촌사회 연구』. 일지사.
- 최재석. 1988. 『한국 농촌사회의 변동 연구』. 일지사.
- 최재울. 1975. “농촌 통혼권의 성격과 변화”. 호남문화연구 7.
- 최홍기. 1979. “한국 농촌사회에서의 가족 및 친족체계의

- 변화” 학술원 국제학술강연회논문집 7.
- 森岡清美 1983. 『家族期論』 培風館.
- 森岡清美 1986. 『家族のライフコース展開の総合的研究 - 發達の移行と世代間關係 -』. 成城大學研究報告書.
- 福武 直 1981. 『日本社會の構造』. 東京大學出版會.
- 신근재역. 1982. 『일본사회의 구조』. 범문사
- Berardo, F.M. 1980. “Decade Review : Some Trends and Directions for Family Research and Theory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4).
- Hollman, T. B. & Burr, W. R. 1980. Beyond the beyond : the Growth of Families in the 1970s” *JMF*. 42(4).
- Pleck, J. H. 1979. “Men’s Family Work : Three Perspective & Some New Data” *The Family Corrdinator* 28.
- Rodman, H. 1967. “Marital Power in France, Greece, Yugoslavia & the United States : A Cross National Discussion”. *JMF* 29.
- Schafer, R. B. & Keith, P.M. 1981. “Equity in Marital Rol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MF*. 42.
- Wheeler, C. L. & Arvey, R. D. 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